

5/12. 세유초

나는 어제 군함에 가서 찬양팀 연습을 했다.

아침 결혼식이 있어서 식권을 받아 기분 좋게 밥먹고 연습하러 내려왔는데
애들이 그날따라 예민해져서 싸우고 다득군 결국 3시전에 끝날 연습이 5시
끝났다. 그래도 끝까지 다 했다는 생각이 편했다.

근데 오늘 아침 6시부터 슬까 날 깨우는데 정말 머슴도 일어나기 싫고
알람도 다 끄고 전하는 마음으로 무시했지만 너무 신경쓰여서 눈을 뜨니 개
지각이었다. 그래서 10분만기 준비하고 무시리 군함에 다녀왔다.
세유일은 아바 생신인데 그날 시간이 다 안맞아서 오늘 인제만에 티셔츠
배터지게 먹고 인제 배가 부르면 눈이 감쳐 오늘도 공부를 못했다..
다음주말은 더 अच्छ게 보내야겠다